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 학회지 연혁 및 논문 경향 분석에 대한 고찰

김 정 희

광주여자대학교 환경보건학과

〈 목 차 〉

I. 서론	IV. 결론
II. 연구방법	참고문헌
III. 연구결과 및 논의	Abstract

I. 서 론

보건교육·건강증진 학회지는 1983년 한국보건교육학회지로 그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 2003년 현재 20년 간의 발간 역사를 기록하였다(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권, 2003). 본 학회지의 발간은 1982년 12월 창립된 한국보건교육학회의 설립목적인 “보건교육과 건강증진에 관한 학술적 연구와 공중보건분야의 발전에 기여함”(khep.richis.org, 2003)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의 하나로써 시행되어 왔다.

본 학회지의 ‘보건교육과 건강증진에 관한 학술적 연구’ 발표를 통한 공중보건 분야에의 발전기여 정도는 실천·응용학문인 공중보건학의 존재 의미를 위한 역할을 얼마나 할 수 있었는

가에 달려 있을 것이다. 공중보건학의 제 분야에서 보건교육·건강증진분야는 일개 분야 자체의 단일 기능의 발전에 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 분야의 성공적 역할 및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잘 발달된 건강한 혈관이나 신경세포와 같은, 중추적·유기적 역할 담당에 있다. 더 나아가 공중보건 분야의 두뇌 역할을 실천하는 데 있다. 따라서 공중보건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이자 사회변화를 위한 도구로서의 보건교육에 대한 관점(Glanz et al, 1990)은 이제 건강증진의 참여와 함께 변화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전체적·연계적으로 계획하고 주도하며 가속시키는 역할로 그 관점적 진보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진보야말로 본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통해 학회가 공중보건 분야의 발

교신저자: 김정희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동 165 광주여자대학교 환경보건학과

전화번호: 062-950-3715, E-mail: jhkim@mail.kwu.ac.kr

전과 동시에 국민의 질적인 삶과 건강증진에 실천적으로 기여함을 현실화하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 학회의 설립목적은 기초로 창간 20년의 변천과정을 되돌아보는 일은 본 학회의 과거와 현재를 발전적 미래로 연결할 수 있는 전환점을 찾는 노력으로써 의의가 있다 하겠다. 본고는 그 기초작업으로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의 연혁을 정리하고, 게재 논문들이 본 학회의 설립목적에 따라 공중보건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기여해 왔는지 여부를 기술통계적 방법을 통해 기술하여 그와 관련된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는 데 기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공중보건학의 제 분야이며, 본 학회와 유사 설립목적의 지인 국내외의 학회지를 비교·분석하는 것은 지양하였다. 이는 발전이 개혁의 의미를 포함하므로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및 학회지의 특수성에 대한 현상적 기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본고의 의도에 비추어 볼 때 비교·분석은 차후 현상적 기술을 바탕으로 공중보건,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등 설립목적과 관련된 제 개념에 대한 한국학자들의 진지한 재고가 따른 후에 그 결과로서 설정된 기준에 따라 시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본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 1983년부터 2002년까지 발간된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년 역사의 주요 변천사를 정리해보고, 2) 1993년부터 2002년까지의 10년 간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특성을 기술하며, 3) 같은 기간 게재논문의 연구주제별 논문 경향을 분석하는 데 그 목표를 두었다.

II. 연구방법

1. 이용자료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 발간된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를 이용하여 분석·고찰하였다. 본 학회지의 주요 변천사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본 학회지 제1권~제19권까지를, 게재 논문의 특성 및 경향 등의 분석을 위해서는 제10권~제19권까지의 10년 간의 국문학회지를 이용하였다.

2. 연구도구

본 연구를 위한 도구로 학회지 발간연도, 권수, 호수, 연구자수, 논문종류, 연구주제, 실제조사대상, 연구 목적별 연구경향 등의 8가지 변수를 선정하였다.

발간연도 권수, 호수, 및 연구자수의 내용은 실수를 사용하였으며, 논문종류의 내용은 가장 최근에 개정된 2000년 11월의 학회지 투고규정에 의한 분류를 이용하였고 (연구논문/ 종설/ 시론/ 사례보고/ 단신/ 서평/ 기타) 학회지 목차에 기재된 분류를 그대로 따랐다.

연구주제는 본고의 목적에 따라 공중보건학 교재들에서 공통된 분야를 선정하여 범주를 설정하였다 (보건교육일반/ 건강증진/ 보건행정/ 학교보건/ 모자보건/ 정신보건/ 보건영양/ 환경보건/ 노인보건/ 구강보건/ 질병관리/ 보건통계/ 인구학/ 기타) (구성희 외, 1999; 김기훈 외, 1999; 전국대학보건관리학교육협의회, 1995; 정규철, 1982; 정희곤 외, 2002). 각 범주 해당여부는 연구주제 뿐 아니라 연구목적 및 대상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되었으며 조사대상과 연구경

향도 이 기준을 따랐다. 따라서 구강보건의 경우 연구목적과 대상이 학교보건에 해당될 경우 학교보건으로 분류되었다. 보건교육과 건강증진을 구분하기 위해 건강증진은 일반적 건강증진 부분과 보건행태와 관련된 부분에 해당되는 주제로 국한하였다.

연구대상과 실제조사 대상이 구체적으로 일치되지 않는 논문을 고려하여 실제조사대상을 사용하였으며, 대상 범주는 일반적 보건교육대상 분류 중 4가지 분류를 기초로 하여 재구성하였다(지역사회주민/ 직장인/ 학생/ 환자/ 문헌자료 등/ 기타). 앞서 언급한 범주 귀속 기준에 따라, 직장인의 경우 일하는 사람의 건강을 다루는 산업보건에 해당하는 산업장 및 사무직근로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보건의료직종사자이면서 그 목적이 산업보건과 무관한 경우는 이 범주에 넣지 않았다. 같은 경우로 학생의 범주에는 학교보건과 관련된 교사가 포함되어 있다. 연구 목적별 경향(실태조사/ KAP/ 평가/ 연관성/ 방안, 전략 등/ 내용분석/ 이론개발 등)에 대한 결정은 각 연구의 상위목적에 따랐다. 일 예로 KAP조사와 함께,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연구분석 하였을 경우 연관성으로 분류되었다.

3. 분석

본 자료의 분석을 위하여 SPSS software version 10 통계프로그램이 이용되었으며 빈도와 백분율을 이용하여 분석결과를 기술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결과 및 논의

1.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주요 연혁 (1983년~2002년)

현재의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는 1982년 12월 4일 한국보건교육학회가 창립됨과 동시에 투고규정이 제정되어 한국보건교육학회지로 그 첫 출발의 기초를 닦았다. 1999년 1월 한국보건교육학회가 세계 학계의 흐름에 발맞추어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로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현재의 학회지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학회지의 역할이 보건교육으로부터 보건교육·건강증진 영역으로 확대됨을 의미한다.

<표 1>은 1983년부터 2002년까지의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의 20년 동안의 주요 연혁을 정리·요약한 것이다. 창간호는 학회 창립 이듬해인 1983년 12월에 발간되었으며, 이후 연 1회 발간하던 학회지는 1987년부터 연 2회로 또 2001년부터 연 3회로 증간되었다.

1999년에 이르러 영문학회지 창간호를 발간하게 되었으며 매년 12월에 연 1회 발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문 학회지를 중심으로 기술하므로 영문학회지의 경우는 연간 발간회수 및 논문 편수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분석에서도 제외하였다.

2002년은 연수로 볼 때 본 학회지 발간 20주년이 되는 해이나 1986년에 학회지가 발간되지 않았던 관계로 학회지 발행 20주년이 되는 권수 20권의 학회지는 2003년에야 발간되게 되었다.

학회지 발간월은 변동이 심하여 창간호 발간 후 총 6회의 변경이 있었다. 대부분의 발간월 변경은 제1호 발간월에서 발견된다. 본고에서의 발간월은 실제 발간월이 아닌 학회지 기재 발간월을 의미한다.

지난 20년간 37회의 발간을 통해 총19권 369

편의 논문이 본 학회지에 발표되었다. 여기서 총 논문편수란 게재논문의 종류에 관계없이 본 학회지에 게재된 총 게재편수를 의미한다.

이러한 그간의 학회지 발간노력은 2001년 본 학회지가 한국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로

지정되는 결실을 맺게 하여 오늘에 이른다.

<표 1>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주요 변천사 (1983년 - 2002년)

발간연도	권수	발간월 (논문수)			주요내용
		제1호	제2호	제3호	
1983	제1권	12 (12편)	.	.	창간호 발간 (년1회 발간)
1984	제2권	12 (9편)	.	.	
1985	제3권	12 (10편)	.	.	
1986	학회지 미발간
1987	제4권	7 (8편)	12 (6편)	.	년2회 발간
1988	제5권	7 (10편)	12 (8편)	.	
1989	제6권	7 (9편)	12 (7편)	.	
1990	제7권	6 (9편)	12 (10편)	.	1호 발간월 6월로 변경
1991	제8권	8 (9편)	12 (7편)	.	1호 발간월 8월로 변경
1992	제9권	8 (8편)	12 (8편)	.	
1993	제10권	7 (8편)	12 (8편)	.	1호 발간월 7월로 변경
1994	제11권	6 (7편)	12 (11편)	.	1호 발간월 6월로 변경
1995	제12권	6 (8편)	12 (10편)	.	
1996	제13권	6 (8편)	12 (9편)	.	
1997	제14권	6 (12편)	12 (12편)	.	
1998	제15권	6 (13편)	12 (15편)	.	
1999	제16권	2 (12편)	9 (16편)	.	학회지명변경(한국보건교육학회지→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발간월 2월과 9월로 변경 영문학회지 창간호 발간 (년1회, 12월)
2000	제17권	3 (11편)	9 (15편)	.	1호 발간월 3월로 변경
2001	제18권	3 (10편)	6 (10편)	9 (12편)	년 3회 발간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학술지로 지정
2002	제19권	3 (12편)	6 (11편)	9 (9편)	
계		(185편)	(163편)	(21편)	총 369편

* 게재논문편수는 종류에 관계없이 전체편수 포함 (예, 18권 3호는 참관기 1편 포함)
* 영문학회지 제외

2.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게재 논문 특성(1993년~2002년)

<표 2>가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본 학회지는 1993년부터 2002년까지의 지난 10년 동안 총 10권 239편의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는 1983년부터 2002년까지의 20년 동안 게재된 논문 총 369편 중 전기 10년 간 130편(35.2%)이 게재되었던 바와 비교해 볼 때 거의 2배(64.8%)에 가까운 편수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기 10년 간의 학회 홍보 및 회원 수 증가에 의해 후기 10년 동안 학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된 결과로 추정된다.

년간 호수별 분포를 보면 전반기 발간된 호수의 편수가 후반기 발간 호수의 논문 편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 1>을 통해 언급한 바와 같이 1호 발간월의 변동이 심했던 것도 이와 관련된 것이 아닌가 사료된다.

논문 당 연구자 수의 범위는 1명에서 10명이었다. 편 당 2명(36.8%)의 연구자가 가장 많으

며 그 다음이 1명(34.3%) 순이다. 연도별로는 10년의 기간동안 전기 5년에 비해 후기 5년으로 갈수록 편 당 연구자수의 증가가 엿보였다. 논문 당 연구자의 수의 합리성과 적절성은 해당 연구의 크기와 깊이 및 연구기간 등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만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논문종류는 연구논문이 전체의 96.7%를 차지하고 있으며 2.9%의 종설과 기타 1편의 참관기로 구성되어 있다. 종설은 1997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연구주제는 건강증진(26.9%) 분야가 가장 많았으며 보건교육(23.9%)과 학교보건(12.2%)의 순으로 많은 비율을 보였다. <표 2>에서는 초기의 연구주제 범주 내의 모자보건과 구강보건의 나타나 있지 않다. 이는 모자보건에 해당되는 논문이 발견되지 않았고, 구강보건의 경우 그 목적과 대상의 성격상 주로 학교보건과 노인보건의로 구분되어 재범주화 되어 정리되었기 때문이다. 연도별 연구주제의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표 2> 발간 연도별 특성

											N (%)	
발간년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권	권수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논문수	16 (6.7)	18 (7.5)	18 (7.5)	17 (7.1)	24 (10.0)	28 (11.7)	28 (11.7)	26 (10.9)	32 (13.4)	32 (13.4)	239 (100.0)
호	1호	8 (50.0)	7 (38.9)	8 (44.4)	8 (47.1)	12 (50.0)	13 (46.4)	12 (42.9)	11 (42.3)	10 (31.3)	12 (37.5)	101 (42.3)
	2호	8 (50.0)	11 (61.1)	10 (55.6)	9 (52.9)	12 (50.0)	15 (53.6)	16 (57.1)	15 (57.7)	10 (31.3)	11 (34.4)	117 (49.0)
	3호	12 (37.5)	9 (28.1)	21 (8.8)
연구자 수	1	7 (43.8)	8 (44.4)	9 (50.0)	5 (29.4)	9 (37.5)	11 (39.3)	8 (28.6)	10 (38.5)	7 (21.9)	8 (25.0)	82 (34.3)
	2	7 (43.8)	7 (38.9)	5 (27.8)	6 (35.3)	14 (58.3)	9 (32.1)	10 (35.7)	7 (26.9)	11 (34.4)	12 (37.5)	88 (36.8)

(계 속)

발간년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계	
연구자 수	3	2 (12.5)	2 (11.1)	1 (5.6)	2 (11.8)	·	6 (21.4)	5 (17.9)	3 (11.5)	9 (28.1)	5 (15.6)	35 (14.6)
	4	·	1 (5.6)	1 (5.6)	2 (11.8)	·	2 (7.1)	3 (10.7)	2 (7.7)	3 (9.4)	3 (9.4)	17 (7.1)
	5	·	·	2 (11.1)	2 (11.8)	·	·	1 (3.6)	3 (11.5)	1 (3.1)	2 (6.3)	11 (4.6)
	6	·	·	·	·	·	·	·	1 (3.8)	·	·	1 (4)
	7	·	·	·	·	·	·	1 (3.6)	·	1 (3.1)	2 (6.3)	4 (1.7)
	8	·	·	·	·	·	·	·	·	·	·	·
	9	·	·	·	·	·	·	·	·	·	·	·
	10	·	·	·	·	1 (4.2)	·	·	·	·	·	1 (4)
	연구논문	16 (100.0)	18 (100.0)	18 (100.0)	17 (100.0)	23 (95.8)	24 (85.7)	26 (92.9)	26 (100.0)	31 (96.9)	32 (100.0)	231 (96.7)
	논문 종류	종설	·	·	·	·	1 (4.2)	4 (14.3)	2 (7.1)	·	·	·
기타		·	·	·	·	·	·	·	·	1 (3.1)	·	1 (4)
연구 주제	교육일반	5 (31.3)	5 (31.3)	5 (27.8)	2 (11.8)	6 (25.0)	10 (35.7)	11 (39.3)	6 (23.1)	4 (12.9)	3 (9.4)	57 (23.9)
	증진	2 (12.5)	6 (33.3)	6 (33.3)	3 (17.6)	6 (25.0)	4 (14.3)	7 (25.0)	13 (50.0)	10 (32.3)	7 (21.9)	64 (26.9)
	행정	2 (12.5)	·	1 (5.6)	1 (5.9)	2 (8.3)	3 (10.7)	4 (14.3)	·	1 (3.2)	1 (3.1)	15 (6.3)
	학교	5 (31.3)	·	2 (11.1)	2 (11.8)	5 (20.8)	2 (7.1)	·	1 (3.8)	8 (25.8)	4 (12.5)	29 (12.2)
	정신	·	·	1 (5.6)	1 (5.9)	1 (4.2)	1 (3.6)	2 (7.1)	1 (3.8)	·	5 (15.6)	12 (5.0)
	영양	1 (6.3)	·	·	1 (5.9)	1 (4.2)	2 (7.1)	·	·	4 (12.9)	·	9 (3.8)
	환경	·	1 (5.6)	1 (5.6)	·	·	2 (7.1)	1 (3.6)	·	1 (3.2)	3 (9.4)	9 (3.8)
	노인	1 (6.3)	·	·	1 (5.9)	·	·	2 (7.1)	4 (15.4)	2 (6.5)	·	10 (4.2)
	질병관리	·	·	·	1 (5.9)	·	3 (10.7)	·	·	·	5 (15.6)	9 (3.8)
	통계	·	·	1 (5.6)	3 (17.6)	1 (4.2)	·	·	·	1 (3.2)	3 (9.4)	9 (3.8)
기타	·	6 (33.3)	1 (5.6)	2 (11.8)	2 (8.3)	1 (3.6)	1 (3.6)	1 (3.8)	·	1 (3.1)	15 (6.3)	
계	16 (100.0)	18 (100.0)	18 (100.0)	17 (100.0)	24 (100.0)	28 (100.0)	28 (100.0)	26 (100.0)	32 (100.0)	32 (100.0)	239 (100.0)	

3.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연구경향 분석(1993년~2002년)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게재 논문의 연구대상으로는 학생(35.7%)이 가장 많았으며, 지역사회주민(28.2%)이 그 다음으로 선호된 대상이었다.

연구주제별 연구대상에서 가시적인 관계의 특징이 나타났다. 보건교육의 경우 문헌, 이론, 교재 및 프로그램 등의 자료(35.1%)를 가장 많이 사용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학생(33.3%)이 유사한 분포를 보였다. 건강증진의 경우 보건교육과 유사한 분포를 보이거나 지역사회주민(37.5%)이 학생(35.9%)을 약간 상회하였다. 보건행정, 학교보건, 정신보건, 보건영양, 노인보건 등은 집중경향을 보이는 연구대상 범주가 있었다. 보건행정의 경우 자료(73.3%)를, 학교보건의 경우 학생(86.2%)을, 정신보건의 경우 지역사회주민(50.0%)을, 보건영양(55.6%)의 경우 학생을 노

인보건의 경우 지역사회주민(80.0%)을 대상으로 하였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대부분 그 분야의 특성상 치중될 수밖에 없는 한계로 인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학문적 유행이나 편향요소의 관계 여부를 살펴보는 데는 보다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경향은 결정요인, 원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등으로 묘사되는 연관성(37.4%) 분석이, 그 다음으로 현황 및 요구도 등에 대한 실태조사(21.8%)가 가장 선호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태조사, KAP 및, 연관성 등과 관련된 연구가 보건교육·건강증진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사전 기초조사로서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구가(68.0%) 이에 해당된다고 해석될 수 있다. 평가와 관련된 내용 또한 대부분,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기 전,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전후를 비교 분석하여 그 효과를 평가한 데 그쳤기에 이

<표 3> 연구주제별 연구대상 및 연구경향

연구주제	교육일반	증진	행정	학교	정신	영양	환경	노인	질병관리	통계	기타	계	
계	N (%) 57 (100.0)	64 (100.0)	15 (100.0)	29 (100.0)	12 (100.0)	9 (100.0)	9 (100.0)	10 (100.0)	9 (100.0)	9 (100.0)	15 (100.0)	238 (100.0)	
연구대상	지역주민	9 (15.8)	24 (37.5)	3 (20.0)	1 (3.4)	6 (50.0)	3 (33.3)	4 (44.4)	8 (80.0)	3 (33.3)	2 (22.2)	4 (26.7)	67(28.2)
	직장인	4 (7.0)	5 (7.8)	.	.	2 (16.7)	.	3 (33.3)	14(5.9)
	학생	19 (33.3)	23 (35.9)	.	25 (86.2)	2 (16.7)	5 (55.6)	.	1 (10.0)	2 (22.2)	4 (44.4)	4 (26.7)	85 (35.7)
	환자	1 (1.8)	6 (9.4)	1 (6.7)	.	2 (16.7)	1 (11.1)	.	1 (10.0)	4 (44.4)	.	2 (13.3)	18 (7.6)
	자료등	20 (35.1)	5 (7.8)	11 (73.3)	3 (10.3)	.	.	1 (11.1)	.	.	3 (33.3)	4 (26.7)	47 (19.7)
기타	4 (7.0)	1 (1.6)	1 (11.1)	.	.	.	1 (6.7)	7 (2.9)	
연구경향	실태조사	11 (19.3)	7 (10.9)	1 (6.7)	11 (37.9)	.	2 (22.2)	1 (11.1)	3 (30.0)	3 (33.3)	4 (44.4)	9 (60.0)	52 (21.8)
	KAP	8 (14.0)	6 (9.4)	.	3 (10.3)	1 (8.3)	1 (11.1)	2 (22.2)	21 (8.8)
	평가	12 (21.1)	6 (9.4)	.	3 (10.3)	.	1 (11.1)	.	.	1 (11.1)	.	4 (26.7)	27 (11.3)
	연관성	4 (7.0)	41 (64.1)	2 (13.3)	7 (24.1)	11 (91.7)	5 (55.6)	5 (55.6)	6 (60.0)	5 (55.6)	2 (22.2)	1 (6.7)	89 (37.4)
	방안	14 (24.6)	2 (3.1)	11 (73.3)	2 (6.9)	.	.	1 (11.1)	1 (10.0)	.	2 (22.2)	1 (6.7)	34 (14.3)
	내용분석	3 (5.3)	2 (3.1)	1 (6.7)	2 (6.9)	6 (2.5)
	이론 등	5 (8.8)	.	.	1 (3.4)	1 (11.1)	.	9 (3.8)

점에서는 보건교육을 위한 준비단계로 간주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기초조사가 전체 조사의 79.4%에 해당된다.

연구주제별 연구목적에서는 대부분의 연구가 연관성을 찾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반면, 보건행정(73.3%) 및 보건교육(24.6%)의 경우 해당 연구 문제의 대책 방안 및 전략 등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향하고 있었다. 개념 및 영역이나 이론 등의 개발을 위한 논문은 전체의 3.8%를 차지할 뿐이었다.

IV. 결 론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 학회지의 발전은 공중보건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배경 및 방법을 제공하는 학회지의 기능상 국민 또는 국내 취약 인구집단의 삶의 질의 향상 및 건강증진과 밀접한 일련의 관계 속에 있다. 20년의 발간 역사를 지닌 학회지로서 이제 학회지의 발전을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과 더불어 국민건강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 요청된다.

창간이후 본 학회지는 학회지를 발간하지 못했던 1986년대 경험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발간월을 변경해야 했던 난관 속에서도 국문 학회지 발간 횟수를 년 3회로 정간하는 양적 성과를 달성하였다. 그러나 게재 논문의 연구주제가 공중보건학 전체 영역의 교육 및 건강증진 분야에 대해 다양하고 고른 분포를 나타내지 못한 현실은 학회의 목적달성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새로운 노력을 투입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게 한다. 어느 시대이나 학문적 관행이나 학계의 유행적 관심 및 그 긍정

적인 영향이 존재해 왔지만, 공중보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Beaglehole & Bonita(1997)의 관점처럼 인간의 삶을 전반적으로 다룰 수 있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영역에 대한 학문적 연구 개발과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고 사료되기 때문이다.

본 학회지의 편 당 적정 연구자수에 대한 고려는 앞서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은 조사를 선행하여 그 자료를 바탕으로 게재 논문 선정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다.

논문종류의 다양성 확보 노력이 특히 요청된다. 다양성 확보의 결과는 학회지 독자의 흥미 유발과 아이디어 제공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예를 들어, meta analysis등을 이용한 review article등은 학회지의 교육적·정보 제공적 기능을 고려해 볼 때 이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이나 종사자 및 전문가 모두에게 매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일부 전문계간지 등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해외논단, 국내외 신서에 대한 분석적 소개 및 논의의 도입은 신뢰할 수 있는 전문화된 최신 정보의 제공과 함께 기존의 연구 틀을 넘어선 새로운 연구방법의 개발 및 논리적 교류를 가능케 하는 통로의 역할을 제공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논문 종류에 있어서의 다양성의 부재는 관련 학계가 지니고 있는 가치의 반영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이 다양성 확보를 위한 환경 조성은 학회의 학회지 편집계획 및 홍보 등을 통해 학회가 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듯 하다. 연구논문 또한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 등의 양적 연구뿐 아니라 질적 연구, 또 이 둘을 필요에 의해 단계적으로 연결한 통합연구 등에 대한 다양한 관심과 이의 적용이 보다 실제적인 보건교육·건강증진학의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구의 실제 조사대상은 연구대상을 대표할 수 있거나 구체적으로 일치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 자료를 보면 연구대상을 지역주민 또는 중년남녀로 기재하였으나 실제 조사대상은 학부모인 경우, 고령주민이란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조사대상은 44세 이상의 연령인 경우 등 일관성이 없거나 혼동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아울러 조사 대상에 있어서도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야를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 제시한 표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지난 10년 간의 본 학회지 게재 논문 조사대상 중 학생(초등/중등/고등/대학생)의 비율이 전체의 35.7%를 차지하였으며, 그 중 대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다(28.2%). 이것은 미국에서 수행된 심리학연구 중 인간행태와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가 나타내는 현저한 특징중의 하나가 대학생, 특히 자원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Matsumoto(1996)가 보고한 것과 상응된다. 이러한 연구가 전형적이기에 과학적 연구가 확보해야 하는 일반성을 지닐 수 없다는 지적이다. 본 학회지에서도 그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없는 조사대상에 대한 재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고에서는 공중보건 전 영역의 포괄적인 범위에 대한 보건교육·건강증진 연구주제를 다룰 것을 이미 제안한 바 있다. 게재논문 주제의 다양성이 공중보건 전반에 걸쳐 확보되었을 때, 본 학회의 회원 및 학회지의 독자가 공중보건 전 분야의 학생, 종사자 및 전문가들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 가능성의 현실화는 본 학회지가 '공중보건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본 연구주제 영역 중 제시한 표에 나타나지 않은 세부 내용을 보면 이 제안이 매우 시급한 요

청임이 더욱 뚜렷해진다. 본고에서 분류한 범주 중 관련 게재논문이 적거나 전혀 없는 경우만이 연구주제의 사각지대가 아니다. 각 범주 내부의 세부 영역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거의 모든 영역에서 관심 밖의 부분이 발견된다. 일 예로 환경보건의 경우, 대부분의 공중보건 교재에서 이 영역을 환경보건, 산업보건 및 식품위생 분야로 세분화하고 있다. 그러나 환경오염 및 환경관련 질병으로 사망하는 세계인구가 40%에 이른다는 미국의 연구결과도(정병선, 1998), 21세기가 환경의 세기가 될 것이라는 용어 및 예측도 무색할 정도로 환경보건 내용은 전무하였다. 인간의 가치관에 따른 생활양식이 산출해 낸 행동양상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류를 죽음으로 이끌고 가고 있다는 보고들은(정병선, 1998) 전혀 본 학회지에 반영되고 있지 않았다. 이는 이 분야의 논문이 한국환경위생학회지 등에 게재될 것으로 추측한 연유일 수도 있으나, 그 실상은 이와 거리가 있다. 이러한 추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한국환경위생학회의 경우, 그 설립목적은 '환경보호 및 건강증진'에 두고 있으나(www.krf.or.kr, 2003) 1974년의 창간호로부터 2003년 6월 현재 발간된 제29권 제2호(통권 제73호)에 이르기까지 환경보건교육 연관 논문은 총 6편, 건강증진 관련 논문은 총 4편 정도를 들 수 있을 뿐이다(한국환경위생학회지, 1974~2003). 대부분의 관련 논문들도 관련 학과 교육과정 개발, 학교환경교육 발전과제, 교과서 내용분석 등이 주종을 이루며 70년대와 80년대에 게재된 노령자 건강관리 및 여고생 영양섭취 양상조사 등의 건강증진관련 논문은 이에 상응한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본고에서 사용한 범주 중 기타에 해당되었던 내용과 같이 운동생리학, 체력, 치아미백 등 본 학회지와의 직접적 연관성에 의문이 제기

되는 연구도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

연구목적 별 연구경향에 있어서는, 아직 우리의 현실이 대부분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초자료를 필요로 하기에 기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의 연구가 시행되는 것은 타당하겠으나 계속적으로 이에 국한된 자료를 제시한다면 학회지의 실제적인 기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학위 논문을 포함한 국내의 많은 연구들이 대부분 자비로 시행되는 점, 연구환경이 열악하여 연구자 모두에게 자료 및 조사대상에 대한 문호가 개방되어 있지 않은 점 등 극복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다. 그러나 실용학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Matsumoto(1996)의 지적처럼 편리한 방법에 의존하기보다는 적은 규모나 수를 가진 인구집단이라 할지라도 그 집단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같은 방법론으로 다른 지역의 연구자와 연계하여 관련 전 지역을 포함하거나 전국적으로 일반화 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긴요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는 본 학회가 관련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원과 연구지역이나 기관 및 대상의 연구문호가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회원 및 회원기관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운영·협조할 필요가 있다.

학회지 창간 25주년을 향해서는 양적 성과를 지속하면서 질적 성과를 만들어 가는 역사를 기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위에서 제시한 제 방향과 더불어, 긴급하게는 논문사독 방식에 있어서의 질적인 변화가 이를 위해 요망된다. 폭넓고 적정한 수의 사독위원 풀의 확보 및 사독료의 현실화 등을 통한 책임 있는 검독의 동기부여를 위한 제안과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차후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게재논문의 방법론에 대한 분석·고찰

이 요청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본 학회의 주요 사독 지침이 설정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재차 강조하건대 보건교육·건강증진학의 특성 상 양적조사 중 표본조사를 시행할 경우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은 연구결과의 실제 적용가능성을 확보하는 일이기에도 특히 중요한 사안이라 하겠다. 또한 단순 통계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할지라도, 연구목적에 맞는 분석방법이며 그 결과에 대한 통계적 해석과 고찰이 깊고 적절하다면 이를 수용할 여지를 열어두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즉, 고급통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되 단순히 그 결과를 제시하거나 방법론적 비교를 제외한 채 여타 유사 연구결과를 단순비교를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를 넘어서는 자세도 본 학회지의 발전을 위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Hofstede(1995)는 문화영역에 따라 교육이 얼마나 달리 지향되는지를 그의 다국적 연구를 통해 보여준 바 있다. 문화의 핵심인 가치는 보건교육·건강증진을 위해서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본 학회지에서 한국인을 위한 효과적인 보건교육·건강증진을 지향하기 위한 문화적 가치를 포함한 제 이론 및 개념이나 영역에 대한 발표가 차후 많이 게재되기를 기대해 본다. 관점의 전환 및 영역의 확대가 우선되고 본 학회의 지원이 있다면 국내 학자들의 역량으로 얼마든지 건강한 사람들과 사회를 위한 이론 및 방법들이 모색될 날이 멀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하여 국제사회 특히 인근 아시아에서 자신들의 보건교육·건강증진을 위해 국내 학자들이 본 학회지에서 제시한 이론 및 방법 등을 응용하여 인류 보건교육·건강증진을 도모하게 되리라는 현실적인 예측과 함께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의 새 모습을 기

대한다.<접수일자: 2003년 7월 27일, 게재확정
일자: 2004년 2월 14일>

참고문헌

- 구성희, 김무식, 김병수, 백종민, 윤희중, 이정경.
공중보건학. 고문사, 1999.
- 김기훈, 문재우. 공중보건학. 정문각, 1999.
- 전국대학보건관리학교육협의회. 보건학원론. 계축
문화사, 1995.
- 정규철. 지역사회 보건학. 수문사, 1982.
- 정희곤, 위성언, 강갑연, 이극로. 공중보건학. 광문
각, 2002.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보건교육·건강증진
학회지. 도서출판 한학문화, 1983~2002.
- 한국환경위생학회. 한국환경위생학회지. 도서출판
한림원, 1974~2003.
- Hofstede, G. 세계의 문화와 조직. 학지사, 1995.
- Beaglehole, R. & Bonita, R. Public health at the
crossroads. Melbourne: Cambridge Univer-
sity Press. 1997.
- Glanz, K., Lewis, F.M., & Rimer, B.K.(Eds).
Health behavior and health education. San
Francisco: Jossey-Bass). 1990.
- <http://khep.richis.org>, 2003.
- <http://www.krf.or.kr>, 2003
- Matsumoto, D. Culture and psychology. Pacific
Grove: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1996.

<ABSTRACT>

The Annals and Tendencies of the Articles

Jeoung-Hee Kim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Health, Kwang Ju Women's University

The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was established in 1982. The following year, the firs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was published. It has been 20 years since the first journal was published. For the future possibilities of the journal this study examined the annals of the journal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ose articles. To do that, 8 variables were chosen : year of publication, volume number, numbers of researchers, types of articles, study field, research subjects, and trends of the study.

A great growth has been noticed during the last 20 years. However, it was found that only limited study fields were investigated and the most frequently adopted study subject was a student groups. Most of the studies were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basic information in their study fields.

It is noted that for the next decade the journal should assure the quality of articles.

Key words : History of Journals, Characteristics of Articles